

2002년도 『신진 연구자 연수지원사업』 시행 산·학·연 연구현장에 연수연구원 4백명 모집중

과학기술부(장관 김영환)는 이공계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경쟁력있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신진 연구자 연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지원인력은 48억원의 예산에 5백명이며, 우선 상반기에 신진 석·박사 학위취득자를 중심으로 연수연구원 4백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연구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신진 연구자 연수지원사업은 단기적 실업대책으로 추진하였던 기존 '인턴연구원 지원사업'을 신진 연구자의 연구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전환한 연수사업이며 연수연구원으로 선정되면 1년간 석사 월 1백만원, 박사 월 1백30만원의 연구수당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월17(목)부터 2월16일(토)까지이며 연수연구원 신청 희망자는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www.kosf.re.kr)의 '연구인력중계마당'에 직접 등록을 하게 되고, 이들을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연구기관은 신청자들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선정·활용된다.

2002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김정덕)은 과학기술 진흥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지원을 위한 2002년도 과학기술 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사업별 융자규모 일반 담보대출이 4백35억원, 기술 담보대출 8백억원으로 총 1천2백35억원이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기금조성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대상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변동금리 적용이며 일반 담보대출의 융자금리는 중소기업이 연리 4.75%, 대기업이 연리 5.25%, 기타는 연리 4.75%이다. 기술 담보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연리 5.5%이다. 융자기간은 일반 담보대출이 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7년 이내이며, 기술 담보대출은 2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5년 이내이다. 상환방법은 원금을 연 4회 균등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매 3개월 후취이다. 융자한도는 동일사업 당 20억원 이내 동일사업자 당 60억원 이내이다. 문의 -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f.re.kr> 또는 기술진흥실 042-869-6021~4

IR52 장영실賞 후보 신청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에서는 IR52 장영실상 2002년 18~35주(18개) 수상제품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2월 초부터 3월 8일(금)까지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상용화된 신기술제품이어야 하며 예비 및 본 심사를 한 후에 4월 10일경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02 - 2185-8822, 20

KS가전제품 선진국 수준으로 산업자원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다국적 기업의 내수시장 확대 및 국가간 기술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현재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에어컨, 냉장고, 청소기 등 가전기기 23개 품목에 대해 2002년 3월까지 KS규격을 국제규격(IEC)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지난 연말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전기납땜인두, 전기토스터 등 5개 규격에 대해 국제규격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제품의 외곽재료가 불에 타지 않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토록 하여 화재시 다른 물질에 인화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완제품에 사용되는 콘덴서, 접속기, 변압기 등 모든 핵심부품에 대하여도 개별시험을 실시토록 하여 고장발생을 줄이고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등 품질수준을 대폭 높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존 KS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규격에 의해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위 출범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내에

‘KR’ 도메인 이름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위원회’가 1월 4일 공식 출범했다. 정보통신부(장관 양승택)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도메인 이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KR도메인 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로써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와 같거나 비슷한 문자를 다른 사람이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짧은 기간 안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정위에 분쟁 신청을 내면 해당 도메인 이름 등록자는 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게 되며, 조정위원회는 말소, 이전 또는 계속보유 결정을 내리고 도메인 이름 등록대행업체는 이를 집행하게 된다. 분쟁조정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 재판절차가 최종 확정판결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2개월 안팎의 짧은 기간 안에 조정결정이 내려진다는 것. 이는 분쟁 조정 신청을 인터넷(www.ddrc.or.kr)으로 받고 심리도 직접 출석 대신 주로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답변서, 관련 증명서류를 바탕으로 서면심리를 하기 때문이다. 분쟁 조정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인터넷주소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메인 이름과 기존 지적재산권과의 관계를 정립,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과 02-750-1245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2003년 말 도입

정보통신부

이동전화 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번호 이동성제도가 오는 2003년 하반기쯤 3세대 이동전화(2GHz IMT-2000)부터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전화번호를 바꾸는데 따른 불편을 줄여주고 통신시장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전문가·통

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번호 이동성 전담반 실무회의와 사업자간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서비스 번호 이동성제도 도입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 동안 의견 수렴과정에서 대부분 사업자들은 3세대 이동전화인 2GHz IMT-2000부터 번호이동성제도를 먼저 도입하자는 단계적 방안을, 일부 사업자가 2세대간 또는 2세대와 3세대간을 포함하여 이동전화 전 부문에서 동시에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경쟁 활성화와 번호자원 관리, 이용자 편의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1월 시내전화와 080 착신과금 서비스에 번호 이동성제도를 도입키로 한데 이어 이번 이동전화 번호 이동성 도입계획을 1월 중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단말기 개발·보급 문제, 기술표준, 상호접속 등에 대한 통신사업자와 전문가,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모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정보통신지원국 부가통신과 02-750-1353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選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명자)에서는 1999년에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과 자연을 벗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 선정·보급사업을 기획하였다. 1999년에 공모를 거쳐 4백여가지의 후보 소리를 접수받아, 소리·영상 전문가와 함께 자연 환경의 소리, 생물체 소리 등 아름다운 소리 1백가지를 선정하였고, 2000년에는 선정된 1백가지 소리에 대해 계절별로 강원도 정선, 부산, 순천,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1백가지 소리의 원음과 영상을 녹취하였다. 녹취한 1백가지 소리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소중한 소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을 구분하여 사계, 향토, 일깨움, 추억, 생명 등 5장으로 구성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을 발간하였다. 듣고 싶은 사람은 www.me.go.kr로 방문하면 된다. ④7